

여수~제주 바닷길 6년만에 다시 열려 '여수오렌지호' 운항



지난 2004년 12월 남해고속 휴항 이후 중단됐던 여수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이 6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여수시와 ㈜여수해운에 따르면 10일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오는 12일부터 여수 엑스포 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해 쌍둥이 페리선 '여수 오렌지호'(2500t 급)를 투입, 운항한다.

여수 오렌지호는 매일 오후 6시에 여수 엑스포 항을 출발해 같은 날 밤 9시에 제주항에 도착하고, 제주항에서 오는 매일 오전 7시에 출항해서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여수 엑스포항에 입항한다. 오렌지호는 길이 71m, 폭 19m 규모로 564명의 승객과 자동차 70대를 실을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육상 승·하선 이동식 브리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4만 원이다. (주)여수해운은 박말희 회기간 동안 보다 원활한 승객 운송을 위해 자동차 등 화물을 탑재하지 않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임은택기자 mtlim@

거제에 제주 옥돔, 한류성 어류 대구는 제주도에... 남해안 '물고기 지도' 바뀐다

기후변화 따라 한류·난류성 어류 분포범위 확대

기후변화에 따라 저층 한류성 어류는 남쪽으로, 표층 난류성 어류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남해안 물고기 지도가 바뀌고 있다. 국립 수산과학원 남서해 수산연구소는 "지난달 10~20일 '남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류성과 난류성 어류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대구와 기름가자미의 분포가 제주도 인근까지 확대된 반면 난류성인 제주도 명물 옥돔은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한류성(寒流性) 어류는 일반적으로 15도 이하 수온에 적합한 어류로, 대표적인 어류로는 대구 등이 있다.

난류성(暖流性) 어류는 온대, 아열대 10~30도 수온에 사는 어류로 정어리와 고등어 등이 대표적인 난류성이다. 대구는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 서식하는 '저층 한류성 어류'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 제주도 북서해역에서 3마리가 채집됐다. 동해안의 저층 한류성 어류인 기름가자미도 제주도 북동해역에서 5마리나 발견됐다.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의 대구 출현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제주 중부해역의 정지망에서 35cm 크기의 2마리가 채집되기도 했다. 반면 '난류성 표층 어류'인 제주 옥돔은 북쪽으로 더 이동해 거제도 앞바다에서 2마리가 발견됐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보성녹차 4년 연속 '국제 유기인증' 획득 도전

우리나라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1호인 보성녹차가 4년 연속 국제 유기인증 정기 심사에 도전한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국제 유기인증 심사를 위해 인증기관인 컨트롤 유니온 월드 그룹(Control Union World Group) 한국법인 심사관이 파견돼 6월부터 3개월간 사업 대상지 전체에 대해 차밭의 임지여건과 재배 및 가공과정에서 유해성분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 유기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차생업을 생필품 채취해 유해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보성차 생산자조합은 지난 2009년 미국(USDA)·유럽(EU)·일본(JAS) 등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밭 137필지 124ha에 대해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후 3년간 정기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상 필지수를 대폭 늘려 253필지 157ha의 차밭과 보성녹차 가공유통센터 등 4개소의 가공 시설이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성군과 차 생산자조합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인

대표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유기인증교육을 실시했다. 보성차 생산자조합 서상균 대표는 "보성녹차의 안전성과 품질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트롤 유니온 월드 그룹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식품이나 원료 등 다양한 제품의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순천 강남여고 학생들이 8일 곡성 가정마을을 방문해 두부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두부 만들기·고사리 캐기 신나요"

농협 전남본부 '1교·1촌 농촌 체험학습' 호응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교·1촌 농촌 체험학습'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팜스테이 마을과 연계해 800명의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본부는 지난 7일 담양 용면

도래수마을에서 어린이집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깻잎 김치 담기 등을 벌인 데 이어 8일 곡성 가정마을에서 순천 강남여고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1교·1촌 농촌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은 깻잎 김치 담기와 손수건 스탬프, 속개떡 만

들기, 곤충 관찰 등 체험을 했으며, 순천 강남여고 학생들은 두부 만들기 and 인절미 만들기, 고사리 캐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시골마을의 정서를 간직하며 자랄 수 있도록 농촌 체험학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순천소방서 소방공사·관리업체 지도 점검

순천소방서(서장 나운환)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순천과 구례에 위치한 소방공사 및 관리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 행

위와 함께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소방감리원 현장 미배치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등 소방 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북

익산시 하수처리장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익산시 금강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생태습지와 자연형 하천이 흐르는 소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익산시는 사업비 28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12월까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배출되는 목천포천 1.3km 구간에 생태하천과 천변 15만㎡ 부지에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생태습지·하천은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수변공간으로, 자연학습장·탐방로·

어도·생물 서식공간·점점 여울·자연 거 도로 등이 설치된다. 시는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반기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익산시 하수관리과 신성철 담당은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휴식뿐 아니라 자연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라며 "수질이 개선되면 새만금 수질 보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북 '세계 순례대회' 준비 순조

11월 대회 앞두고 조직위 출범...김수곤 초대 위원장 선출

오는 11월 열리는 '2012 세계 순례대회' 준비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세계 지역 4개종단(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은 지난 7일 '세계 순례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김수곤 전 전북대총장을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계 순례대회'는 도내 종교문화 자원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사)한국순례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져 오던 행사를 정비해 보다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사)한국순례문화연구원 이 공동 주관한다.

'아름다운 순례길'은 전주·익산·김제·완주를 잇는 240km(8박9일 코스)에 달하는 종교문화 콘텐츠 도보길로 지난 2년여 동안 6만명에 달하는 순례 탐방객이 다녀갔다. 이번 세계 순례대회는 세계 종교 지도자와 함께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섭외 중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함께 종단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종교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세계 순례대회'의 무대가 되는 '아름다운 순례길' 일원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난달 완료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순

례길 정비와 스토리텔링, 안내표지판 등 준비에 나섰다. 도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순례길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의거, 순례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순례길'과 세계순례대회 개최 등 종교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곤 조직위원장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여러 종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점차적으로 민족종교 등 다른 종단과 도민이 함께해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단신

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사랑방학교'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과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문화 가정 사랑방학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10개교 등 100개교를 선정해 12월 말까지 '다문화 가정 사랑방학교'를 운영한다. '사랑방 학

교'는 교직원, 일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교육이 의무적으로 추진된다. 학교별로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 등 학습 부진아에 대한 보충 학습 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내일 군산대서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

'2012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10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제이와이중공업, (주)비티엑스코리아 군산지사 등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총 1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 뿐만 아니라 정보관이 설치돼 현대중공업, 한국 GM, 티타대우 자동차, OCI 등 군산을 대표하는 대기업 4곳의 채용 및 면접 정보 등이 제공된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오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정읍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정읍시는 지난 7일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가게 등이 '공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대규모 점포 대표와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건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일자로 '정읍시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후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광한루원내 봄꽃·토피어리 '포토 존'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광한루원내에 애기장미·팬지·사투비아 등 봄꽃과 토피어리를 활용한 '포토 존'을 조성·운영한다. 포토존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주제로 한 '러브 하트존'과

아이들의 호기심과 동심에 눈높이 이를 맞춘 '아기사슴존'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설사업소는 광한루원과 관광단지, 초화원 등 5만㎡ 면적에 대해 제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부부의 날 찰떡궁합 떡 드세요"

정읍시, 지역 농산물 선물보내기 운동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백제야요 '정읍시의 천년사랑을 담은 스토리텔링 상품'이 개발됐다. 정읍시와 (사)사랑나눔 행복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이여상)는 떡과 장미 등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찰떡궁합 떡세트'를 개발, '부부의 날'과 연계해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떡세트는 찰쌀떡과 두툼떡 21개, 장미 2송이, 부부간 사랑을 담은 사랑의 카드도 구성돼 있다. 시는 떡세트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정읍시'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높이고 정읍 특산물의 홍보와 매출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판매 수익금의 5%는 다문화 가정과 불우가정돕기 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작은영화관' 공모사업 선정...연말 개관

오는 12월말 김제시에 2D와 3D 최첨단 영상·음향시설을 갖춘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8일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작은영화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영화 전문 상영시설이 없는 시·군에 전용 영화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해 1층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8억5000만원(도비 3억5000만·시비 4억·전북은행 1억원)을 들여 총 110석 규모의 2개관(면적 470㎡)을 오는 12월말 개관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성기자 hnews@



"모두가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순창군 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영주)는 8일 아버지 날을 맞아 풍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풍산면 노인 200여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순창군 제공>